

“말과 글은 사람의 마음... 고운말 가득한 세상을”

2024 광주 선플운동 한마당 성료

본보·호남미래포럼·선플재단 주최 정광고 학생들, 언어순화활동 전개 강수훈·김나운·임미란 시의원 수상 “어떤 상보다 공정...선플문화 앞장”

“칼에 베인 상처는 금세 회복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지요. 선플 가득한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정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펼치는 ‘2024년 학교·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운동 한마당’이 마무리됐다.

전남일보와 호남미래포럼·선플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일 정광고 녹야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교사, 광주시의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선플누리단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해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광주시의원·학생·교사 등에게 ‘모범 선플 우수상’을 시상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선플운동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자는 교육 캠페인이다.

배석일 정광고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말과 글에는 파동이 있다. 벨고 쓰는 사



2024년도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강수훈(왼쪽부터), 김나운, 임미란 의원.

나건호 기자

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의정·학교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선플운동에 동참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광고 학생들이 주축이 된 선플누리단은 올해 동안 청소년언어순화활동 및 시의원 선플의원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9월에는 광주선플의날 캠페인을 통해 ‘악플 대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요’ 주제로 사이버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누리단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플우수 의원상을 선플모니터단(정광고 학생·

졸업생)이 1년분량의 광주시의회 회의록을 분석,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고 동료 의원 간 상호 존중 등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시의원 23명 중 김나운·강수훈·임미란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중 김나운·임미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들은 높은 빈도의 순화언어(비외래어)를 사용하는 등 바른말 고운말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각 의원별 비순화 언어 사용 빈도는 △임미란 7% △강수훈 11% △김나운 13% 다. 순화언어 사용 빈도 또한 각각 1위·3

위에 올랐다.

강수훈 의원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받아본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오롯이 바른말 하나로 받은 것 아닌가. 그 어떤 상보다 공정하고 뜻깊은 것 같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란 의원은 “지난해 이 상을 받았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미래지도자인 청소년·대학생에게 받았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의미가 크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칭찬도 되고 내년을 위한 용기도 불어 넣어진다. 바른말 쓰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나운 의원이 “감사하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플모니터단으로서 활동한 학생과 지도교사도 수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일보사장상에는 김도희 학생 및 박지현 교사 등 9명이, 선플재단이사장상에는 11명의 정광고 학생이 수상했다.

2학년 김도희 학생은 “언어 순화·비순화에 대한 개념도 몰랐는데 올해 활동을 통해 우리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선플운동이 많이 알려져 바르고 고운말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고운 선플달기운동본부 전국부회장은 “혐오문화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말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우리가 평소에 ‘바르고 고운말을 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 생활 속 선플은 실제 ‘혐오’를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1일 전남일보와 호남미래포럼 등은 ‘광주·전남 선플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선플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날을 광주 선플의 날로 정했다. 이후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5년 9월 본보와 사단법인 호남미래포럼, 선플재단과 선플협약을 갖고 선플운동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밝혔으며 매년 선플모니터단이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정성현 기자

강정일 도의원 “무안공항 시외버스 1일 이용객 1명”

무안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안공항 시외버스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사진)은 지난 19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시외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시외버스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인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현재 광주 일 4회, 목포 일 3회로 하루 총



7회 운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안공항 시외버스의 일 평균 이용객은 1명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안공항 시외버스는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버스 운행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 증편이 아닌 항공편 스케줄에 맞춘 탄력적인 버스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용객 증가 및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강 시장, 창업기업 시민체감형 실증현장 점검

광주시, ACC 등 실증무대 지원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이 20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시민체감형 실증현장을 찾았다.

강 시장은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시민체감형 실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업 초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있다.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85억원 달성, 신규고용 5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13개사를 포함해 총 4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 무인 포토 부스 ‘이퓨

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VR) 광주투어 체험형 관광게임 ‘일이유’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케이팝(K-POP) 팬 네트워킹 스페이스 최애의나라 ‘티슈오피스’ 등 6개 기업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체감형 실증은 제품 실증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청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품 실증 단계부터 미리 반영, 최적화된 제품 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시민들은 일상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